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

정연주(고려대)** · 최석재(성신여대)*** · 정경미 · 홍종선(고려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
| 2. 문제 제기 | |
| 3.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 3.2. '감정' 의미의 전형성 |
| 3.1.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 | 3.3. 정리 |
|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 및 감정 의미의 전형성을 고려하여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 표현 관용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장세경·장경희(1994), 임지룡(2003), 김향숙(2005), 주경미(2006), 정성미(2008), 권경일(2009) 등이 있다. 장

*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01-2008-000-20696-0).

** 제1저자

*** 교신저자

세경·장경희(1994)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를 정서 경험 관용어, 정서 야기 관용어, 정서 표출 관용어로 나누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은유, 환유의 기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이 해석되는 방식과 관용 표현의 효과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감정 표현 관용구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밝히고 있다.

감정 표현 관용구 속 환유의 기제에 주목한 연구로는 임지룡(2003), 주경미(2006)이 있다. 임지룡(2003)은 감정 표현 관용구가 감정에 따른 생리적 반응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이고, 그 결과 감정 표현 관용구 속에는 신체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경미(2006)은 감정 표현 관용구 속 신체 명사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김향숙(2005), 정성미(2008)은 감정 표현 관용구 속에 내재된 은유의 기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인 권경일(2009)는 감정 표현 관용구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감정 표현 관용구에는 내재적 감정 표현 관용구와 외현적 감정 표현 관용구가 있으며, 특정 감정이 특정 어휘와 자주 관련되는 양상이 보인다는 점, 외현적 감정 표현 관용구는 가능, 의도, 명령 등의 표현이 제약된다는 점, 구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가 다른 어휘로 바뀌면서 유의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감정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감정 표현 관용구가 갖는 많은 특성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 중에서도 의미적으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를 더 제한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1990년~2001년 사이에 출간된 소설 10권을 선택하여 감정 표현을 탐색하였다. 소설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소설이 다양한 감정 표현의 보고로서의 대표적인 장르이기 때문이다. 전산 작업의 편의상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에 수록된 소설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저자가 모두 다른 전체 18권의 자료 중 4만 어절 규모 이하의 소설 3권을 제한 후 출판연도가 고루

분포하도록 하여 선정한 총 10권의 자료를 대상으로 감정 표현을 추출하였다.

파일명	소설(집) 제목	작가	출판사	출판년도	어절 수
BREO0091	완전한 만남	김하기	창작과 비평사	1990	56,491
BREO0095	달힌 교문을 열며	유시춘	사계절	1990	45,777
BREO0086	통도사 가는 길	조성기	민음사	1992	47,888
BREO0088	해남 가는 길	김영현	솔	1992	59,128
BREO0081	시간속의 도적	채영주	열음사	1993	49,736
BREO0080	포구	한승원	장락	1994	55,619
BREO0082	하백의 딸들	송하춘	문학과지성사	1994	57,998
BREO0078	나비, 봄을 만나다	차현숙	문학동네	1997	48,539
BREO0075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문학동네	2000	49,170
BREO0077	마이너리그	은희경	창작과 비평사	2001	45,072
어절 합계					515,418

[표 1] 감정 표현 추출 대상 소설 목록

2. 문제 제기

이 장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주된 이유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감정 표현 관용구들 중에는 성격이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감정 표현 관용구라는 이름 아래 함께 다룬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경일(2009)에는 ‘가슴’이 포함된 감정 표현 관용구로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뛰다, 가슴이 설레다, 가슴이 후련하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가슴이 뜨겁다’는 ‘가슴’과 ‘뜨겁다’가 결합할 때에만 감정의 의미가 나타나고, 실제로 ‘가슴이 뜨거운’ 상황이 아니어도 특정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 관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가슴이 뛰다’의 경우에는 ‘가슴’과 ‘뛰다’의 결합을 통해 감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가슴이 뜨겁다’와 같은 성격을 갖지만, 실제로 ‘심장이 뛰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이고 놀람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 의미는 1차적 의미를 거쳐 2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격도

갖는다. ‘가슴이 설레다’와 ‘가슴이 후련하다’는 각각 ‘설레다’와 ‘후련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감정의 의미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뛰다’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세경·장경희(1994)에서도 ‘화’를 나타내는 관용구로 ‘부아가 나다, 화가 동하다’ 등을, ‘슬픔’을 나타내는 관용구로 ‘가슴 아프다, 눈물을 짓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부아가 나다, 가슴 아프다’는 ‘부아’와 ‘나다’, ‘가슴’과 ‘아프다’가 결합할 때에만 감정의 의미가 나타나고 실제로 ‘부아가 나거나’ ‘가슴이 아픈’ 상황이 아니어도 특정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화가 동하다’는 명사 ‘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정의 의미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고, ‘눈물을 짓다’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이고 2차적으로 감정의 의미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다.

이처럼 감정 표현 관용구들은 그 성격에 따라 더 구분될 수 있다. 관용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표현들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논의하는 것이 관용 표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감정 표현 관용구에 대한 정의는 아주 구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개별 사례들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관용구로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경일(2009)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

- (1) “둘 이상의 어휘로 구성되어 쓰이면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합으로 전체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서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동작이나 내적인 감각 상태를 표현한다.” /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면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전이된 의미로서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연구들에서의 규정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감정 표현 관용구의 개념을 큰 틀에서 (1)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1)의 규정만으로는, 예를 들어 ‘마음을 놓다’, ‘입술이 파래지다’와 같은 표현이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을 놓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합으로 “안심”의 의미가 읽히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구체물처럼 생각하는 은유의 틀 내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도 “안심”의 의미가 읽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공포”의 의미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입술이 파래지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갖는가, 아니면 전이된 의미로서 관용적 의미를 갖는 경우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1)과 같은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이 장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특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먼저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에 대해 고려한 후 ‘감정’ 의미의 전형성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어떤 관용구가 높은 관용성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감정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그것을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1.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

3.1.1. 조건 1: 결합적 관습성을 포괄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의 감정 표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감정 표현 관용구는 물론 ‘관용 표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용 표현’에 대한 규정이 연구자마다 달라지기도 하므로 관용 표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관용 표현은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둘 이상의 단어가 관습적(보편적)으로 결합하여 쓰이면서 의미적으로는 그 구성 성분들의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제3의 단일 의미를 갖는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박영순 1985, 최경봉 1992, 이희자 1995, 박동근 1995, 고광주 2000, 박만규 2003 등). 즉 둘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인다는 의미론적 특징을 관용 표현의 주요 속성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숙어)뿐 아니라, 통사론적 관습성과 화용론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들을 모두 관용 표현의 개념 안에 포함하기도 한다(박진호 2003). 이에 따르면 결합의 관습성을 갖는 언어(웃을 입다, 신을 신다, 장갑을 끼다)와 언어 사용 상황과 언어 표현 사이의 관계에서 관습성이 드러나는 표현(여보세요)도 모두 관용 표현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의미적 관습성뿐 아니라 결합적 관습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관용 표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관용 표현 중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을 감정 표현 관용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의미적 관습성과 결합적 관습성은 그 경계를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진호(2003)에서도 비유에 의한 의미 확장이 관용 표현 전체에 걸친 것인지 그 안의 한 단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과, 의미적 관습성을 가진 표현에서 어느 한 요소가 의미적으로 투명하게 됨으로써 결합적 관습성을 가진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마음을 놓다’도 마음을 대상화하는 은유를 통해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 ‘마음’의 의미는 투명하고 ‘놓다’만 “편하게 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를 갖게 되기는 했지만 ‘마음’이라는 대상을 전제로 해서만 이러한 의미 확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특정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요소가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어와 숙어 사이에 걸치는 속성을 갖게 된다. 언어 중에는 ‘신을 신다’와 같이 비유적 의미와 무관한 유형도 있지만, 언어가 비유적 의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숙어와의 경계선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쩡하다, 코가 쩡하다, 가슴이 철렁하다, 마음에 걸리다’와 같은 표현들은 본래 ‘떨리다, 쩡하다, 철렁하다, 걸리다’가 ‘가슴, 마음, 코’와 같은 명사들과 함께 나타남으로써만 감정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 전체에 존재하던 감정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로 정착함으로써 지금은 ‘떨리다, 쩡하다, 철렁하다, 걸리다’ 자체만으로도 감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예. “나 떨려 / 그 영화 쩡하다 / 그 애기 듣고 철렁했어 / 그 애가 자꾸 걸리네”).

이처럼 결합적 관습성과 의미적 관습성은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서로 넘나들고 있으므로, 다양한 층위에서의 관습성을 포괄하는 관용 표현의 개념을 전제로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구를 살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2)와 같이 창조적(문학적)인 은유를 이용한 감정 표현들이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2) 가슴에 불덩어리를 만들다, 가슴에 불기둥 같은 것이 곤두서다, 감성이 소용돌이치다, 손톱이 곤두서다, 신경을 자근자근 짓썩다, 얼굴 근육이 부풀어오르다, 처참하게 폭격당한 기분 ...

(2)와 같은 표현은 빈도가 극히 낮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결합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표현은 무의식적인 은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창조한 표현으로서 의식적인 은유에 의한 것이 많다. 이처럼 의식적인 은유를 통한 창조적인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미 변화에 기여하기 어려워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단위로 보기 어렵고, 어떤 층위에서도 관습성을 갖지 않으므로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처럼 의식적인 은유에 의한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선은 국어 자료에서 각 표현이 나타나는 빈도를 살핌으로써 하나의 방증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무의식적인 은유에 의한 표현은 대중들에게 공유되어 국어 자료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표현은 대중들에게 공유되지 않아 대개 일회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체로 무의식적인 은유는 멀고 낮은 대상을 가까운 대상에 비추어 표현함으로써 나타나고, 의식적인 은유는 가깝고 낮은 대상을 멀고 낮은 대상에 비추어 표현함으로써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진우 2004:338-339). 창조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가깝고 낮은 대상을 낮은 대상에 비추어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인 것이 낯설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2)의 예 중에서는 황망한 기분을 낮은 대상인 폭격에 비유한 ‘처참하게 폭격당한 기분’이라는 표현이 창조적인 은유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창조적인 표현들도 언어 공동체 내에서 규범화된 표현으로 정착하는 경우에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표현이 오래 유지되며 정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1.2. 조건 2: 구 전체를 통해서만 감정 의미가 드러나는 감정 표현

결합적 관습성을 갖는 관용 표현으로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는 구를 이루는 요소 중 일부가 직접적으로 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만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감상에 젖다, 감상에 빠지다’와 같은 표현은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슬픔의 의미는 전적으로 ‘감상’이라는 명사를 통해 나타나고, 비유적으로 확장된 쓰임을 갖는 ‘젖다, 빠지다’는 해당 감정이 유발되고 있다는 의미만을 드러낸다. 반면에 ‘마음을 놓다’의 경우에는 ‘마음’이나 ‘놓다’ 자체에서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안심의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

‘감상에 젖다, 감상에 빠지다’와 같은 표현도 넓은 범위에서 감정 표현 관용구에 속할 수 있지만, ‘젖다, 빠지다’ 등의 동사는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 명사와 어울려서 해당 감정의 유발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상 비교적 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마음’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유적 의미를 갖는 ‘놓다’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후자와 같이 구 전체를 통해서만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에 ‘구’라는 단위가 의미론적으로도 유의미해진다.

(3) ㄱ. 가슴이 뛰다, 가슴이 저리다, 구역질이나다, 눈물이 나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을 흘기다, 몸이 떨리다, 미소를 짓다, 발걸음이 무겁다, 신경이 쓰이다, 얼굴을 찌푸리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풀이 죽다, 할 말을 잃다 ...

☞ 구를 이루는 어느 한 요소에 감정의 의미가 집중되지 않고, 구 전체를 통해 감정의 의미가 드러난다.

ㄴ. 감정을 다잡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졸이다,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좋아들다 ...

☞ ‘감정’, ‘마음’ 자체는 특정 감정을 신호하지 않으며, ‘다잡다’, ‘아프다’ 등과 어울려 특정 감정을 신호하는 감정 표현이 된다. ‘다잡다’, ‘아프다’ 등도 그 자체로 특정 감정을 신호하지 않고 ‘감정’, ‘마음’과 같은 제한적인 대상과 어울릴 때 감정 의미를 나타낸다.

통사론적 측면에서만 관습성을 갖는 경우(‘감상에 젖다’)와 통사론적, 의미론적 측면 모두에서 관습성을 갖는 경우(‘마음을 놓다’) 중 물론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높은 정도의 관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 요소들이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용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 차원의 관습성과 더불어 결합적 차원의 관습성도 고려하는 관용 표현의 개념이 두 관습성 사이의 넘나들 현상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합적 관습성만 가지면서 감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 표현도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 표현을 이루는 각 요소들은 의미상 매우 투명하다는 점에서 의미적 관습성까지 갖는 관용 표현보다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이 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

2) 이처럼 구를 이루는 일부 요소가 감정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구 단위를 상정하지 않아도 어휘 단위(즉 감정 명사나 감정 동사)를 통해 손쉽게 감정 의미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류는 감정을 나타내는 ‘구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입장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류이기도 하다.

3.1.3. 조건 3: 구 자체에 감정의 의미가 직접 부호화된 감정 표현

어떤 관용구가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을 표현한다면 감정 표현 관용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맥락을 통해 감정의 의미가 환기되는 것일 뿐인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장세경·장경희(1994)에서 정서 표출 관용어에 포함한 ‘눈을 부라리다, 눈을 흘기다, 머리를 흔들다, 손뼉을 치다’와 같은 표현은 주로 특정 감정이 유발됨으로써 야기되는 행동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감정 의미와 관련될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이 나타내는 행동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서만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 구 표현이 지시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 감정의 의미는 맥락을 통해 부차적으로 환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얼굴을 붉히다’와 같은 표현은 해당 표현이 나타내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 감정을 지시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구 표현과 감정 의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구 중에는 감정 의미를 직접 내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맥락 속에 감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감정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전자의 표현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표현은 넓은 범위에서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와 같은 표현들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고스란히 가진 채 감정 의미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가슴이 뛰다’라는 표현은 기쁨이나 놀람,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반드시 ‘실제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이고, 기쁨이나 놀람, 두려움의 감정은 2차적으로 환기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4)에 제시된 표현들은 각 표현이 지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고스란히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 가슴이 뛰다, 걸음걸이가 가볍다, 고개가 수그러들다, 콧불이 달아오르다, 기운이 빠지다, 눈물을 흘리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썹이 떨리다,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뒤통수를 긁적거리다, 목소리가 떨리다, 목이 메다, 몸을 떨다, 미소를 띠다, 손이 떨리다, 숨이 막히다, 악을 쓰다, 어쩔 줄 모르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입술이 파래지다, 입을 다물다, 코가 시큰하다, 한숨을 내쉬다 …

이처럼 구성요소의 의미가 투명하게 드러나 의미적 관습성이 낮은 구 표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감정의 의미가 다의로 분화될 정도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5) 나는 (무서워서/추워서) 입술이 파래졌다.
cf) 나는 (초조해서) 애를 태우며 철수의 소식을 기다렸다.

의미적 관습성이 낮은 ‘입술이 파래지다’는 ‘나는 무서워서 입술이 파래졌다’에서와 같이 두려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무서워서’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 반면에 의미적 관습성이 높은 ‘애를 태우다’는 걱정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초조해서’ 등과 함께 나타나더라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고 감정의 의미를 내포한 표현으로만 해석된다. ‘입술이 파래지다’처럼 의미적 관습성이 낮고 감정 의미를 해석해 낼 때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 표현은 감정 표현 관용구로서의 전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에 제시한 구들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나타내는 상황 없이도 쓰일 수 있으며, 특정 감정 의미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적 관습성이 높다.

- (6) ㄱ. 가슴이 아프다, 거품을 물다, 군침을 흘리다, 기가 막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다, 눈앞이 캄캄하다, 뒤통수가 서늘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소름이 돋다, 얼굴을 붉히다, 치가 떨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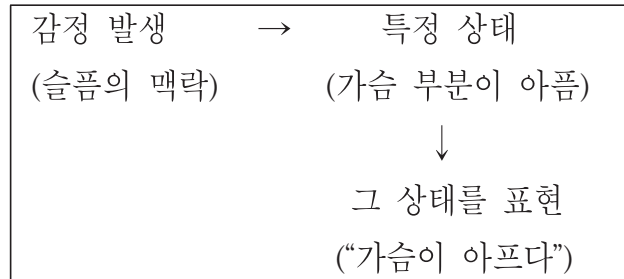
ㄴ.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뜨거워지다, 가슴이 무겁다, 가슴이 서늘하다, 부아가 끓다, 애를 태우다

(67)은 본래 특정 감정이 유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을 것이나, [감정 → 신체적 반응 → 그것을 표현함]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감정 → 그것을 표현함]의 관계로 굳어짐으로써 의미적 관습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래 어떤 감정에 의한 신체적 반응을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의미와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었던 표현이 감정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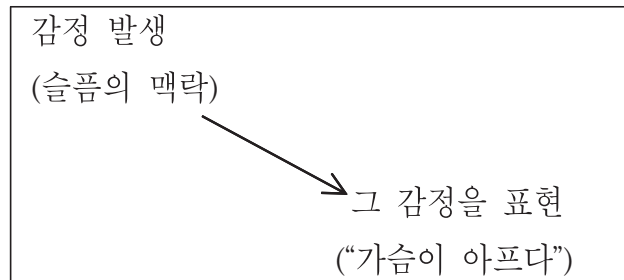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얼굴을 붉히다’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실제로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 없이도 분노의 감정 상태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³⁾ 이는 곧 이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의미적 관습성을 가지며 감정 표현으로 굳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 이처럼 감정 표현 관용구 중에서도 의미적 관습성을 높은 정도로 획득한 구 표현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가능성을 갖는다. ‘가슴이 아프다’나 ‘치가 떨리다’도 같은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표현들은 본래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던 것이었으나, 특정 감정 상황과 자주 관련된 결과로 관습적으로 특정 감정의 의미를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가 갖는 1차적 의미에 기반하여 맥락 속에만 존재하던 감정 의미가 구 자체가 갖는 다의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 나타난 ‘안상수 대표와 윤증현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얼굴을 붉혔다.’라는 표현은 정치인들이 갈등으로 인해 분노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얼굴이 붉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같은 상황 반복, 맥락에 존재하던 감정의 의미가 구 자체의 의미로 직접 부호화됨



[그림 1] 맥락에 존재하던 감정 의미의 부호화 과정

한편 (6ㄴ)에 제시된 구들은 은유의 기제를 통해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선 의미적 관습성을 갖는다. (6ㄱ)과 같이 본래 특정 감정으로 인해 유발된 상태나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던 표현이 직접적으로 감정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경우이든 (6ㄴ)과 같이 특정 감정을 지시하기 위해 은유적인 표현을 만들어낸 경우이든 그러한 표현들은 감정의 의미를 직접 내포하면서 구성요소들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합만으로 전체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적 관습성을 가지며, 따라서 구 전체가 기억의 단위가 됨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3.2. '감정' 의미의 전형성 - 조건 4: 자극체에 의한 비의도적인 반응을 표현

감정 표현 관용구라면 당연히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감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의 속성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H. Rohracher(1976:409-410), W. Lyons(1980:58) 등의 연구를 참고하면, 감정이란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발생하며,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비의도적인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2004:26-31, 2005; 홍종선·정연주 2009). 이러한 내적인 감정 경험 외에, 행위주가 타인에게 감정을 야기하는 행위나 행위주가 감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행위도 감정 의미와 관련된다.

그런데 감정은 전형적으로 비의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는 어떤 자극체로 인한 비의도적인 반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감정 표현 관용구 중에서도 자극체로 인한 비의도적인 반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7)과 같이 어떤 감정 상태와 관련한 의도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구는 감정 표현 관용구로서의 의미론적 전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7) 감자를 먹이다, 고태를 지르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면박을 주다, 숨을 죽이다, 신경질을 부리다 ...

(7)의 구들은 특정 감정에 의해 유발된, 그러나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지시한다. 타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감정과 관련된 의미를 환기시킬 수 있지만 비의도적인 내적 양상으로서의 감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넓은 범위에서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본래는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쓰이던 것이었지만 관습적으로 감정 의미와 관련된 결과로 비의도적인 내적 양상으

로서의 감정의 내용을 서술하는 데 쓰이게 된 표현들이 있다. 그러한 표현들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할 수 있다.

- (8) 가슴을 쥐어뜯다, 발을 동동 구르다, 배꼽을 잡다, 이를 갈다, 코웃음을 치다, 콧방귀를 뀌다, 혀를 내두르다, 혀를 차다

(8)의 구들은 실제로 가슴을 쥐어뜯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 존재할 때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없더라도 특정 감정을 겪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도 그 사람 소식 듣고 슬펐어’ 대신 (가슴 부분을 쥐어뜯는 행동 없이도) ‘나도 그 사람 소식 듣고 가슴을 쥐어뜯었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 그 사람 때문에 분노했어’ 대신 (이를 가는 행동 없이도) ‘나 그 사람 때문에 이를 갈았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했던 감정 의미의 부호화 과정을 겪은 결과로 글자 그대로가 지시하는 상황 없이도 특정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의도적인 내적 양상으로서의 감정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비의도적인 내적 양상으로서의 감정의 내용을 서술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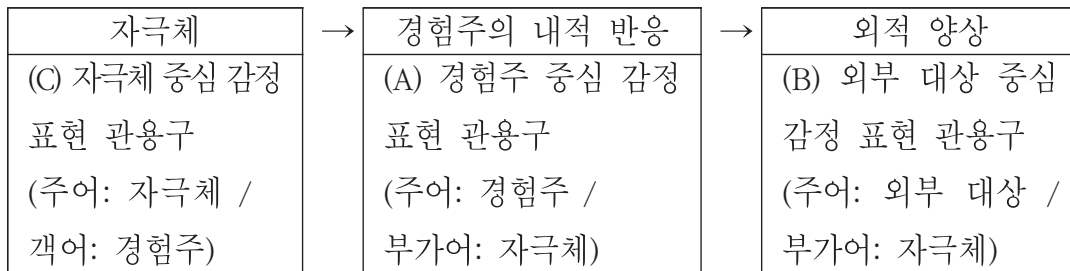
- (9) ㄱ. 가슴에 멍이 들다, 감정이 상하다, 구역질이 나다, 기가 질리다, 낮이 간지럽다, 마음에 들다, 마음이 놓이다, 풀이 죽다 ...
 ㄴ. 거품을 물다, 낮을 붉히다, 표정이 어둡다 ...
 ㄷ.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후벼 파다, 마음을 끌다, 마음을 사로잡다, 숨통을 조이다, 신경을 건드리다 ...

이 중 (9ㄴ)은 권경일(2009)에서 외현적 감정 표현 관용구로 다루어진 유형으로서,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의 상태를 평가적으로 서술한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9ㄱ)의 부류와 동일한 의미론적 특성을 갖지만, 경험주의 내적인 반응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며 경험주 외부의 대상이 갖는 상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술의 관점을 달리한다.

(9ㄴ)은 장세경·장경희(1994)에서 정서 야기 관용어로 다루어진 유형으로서, 이 또한 감정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9ㄱ, ㄴ)과 성격이 같다. 다만 경험주의 내적 상태에 대한 서술이나 외부의 대상이 갖는 상태에 대한 평가적 서술이 아니라, (때로 의인화된) 자극체의 감정 유발 행위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서술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의도적인 내적 양상으로서의 감정은, 감정을 직접 겪는 경험주를 축(pivot)으로 하여 그 내적 양상을 서술하는 방식(A)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감정을 겪고 있는 외부 대상을 축으로 하여 그 외적 양상을 서술하는 방식(B)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체를 축으로 하여 그것이 객체에 감정을 야기하는 양상을 서술하는 방식(C)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림 2] 비의도적 반응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 관용구가 취하는 세 관점

3.3. 정리

지금까지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할 수 있는 표현들이 갖는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구’ 단위로 다룰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결합적 관습성을 기본 특성으로 가져야 함을 언급하였다(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단위가 의미적 관습성을

갖는다면, 그 단위는 결합적 관습성도 갖는다). 문학적이고 창조적인 은유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결합적 관습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 (10) 문학적 은유에 의한 표현: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서 제외
 가슴에 불길을 붙이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만들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다, 가슴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곤두서다, 가슴에 불기둥 같은 것이 곤두서다, 감성이 소용돌이치다, 감정의 격랑, 눈언저리로 뜨거운 물기가 흘러내리다, 기분이 충충하다, 눈에 물을 담다, 손톱이 곤두서다, 신경을 자근자근 짓씹다, 신경이 육신거리다, 심장이 덜컹거리다, 얼굴 근육이 부풀어오르다, 처참하게 폭격당한 기분, 피의 소용돌이가 세포마다 휩쓸고 흐르다

또한 결합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 중에서도 구 전체를 통해서만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일 경우에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합적 관습성만 갖고 의미적 관습성을 갖지는 않는, 어휘 차원에서 감정의 의미가 포착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 (11) 어휘 차원에서 감정 의미가 포착되는 표현: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에서 제외
 [감정 동사]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설레다, 가슴이 철렁하다, 감정이 북받쳐오르다, 기분이 개운하다, 기분이 고소하다, 기분이 뒤숭숭하다, 기분이 들뜨다, 기분이 암담하다, 기분이 언짢다, 기분이 으스스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홀가분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
 [감정 명사] 감동에 젖다, 감상에 빠지다, 걱정이 태산, 겁에 질리다, 걱정에 휘말리다, 경계심을 풀다, 고뇌에 빠지다, 공감이 가다, 공포에 떨다, 관심을 갖다, 기대에 차다, 기쁨에 차다, 긴장을 풀다, 난색을 표하다, 노기를 띠다, 두려움에 떨다, 보람에 차다, 부끄럼을 타다, 분노가 솟구치다, 불만을 터뜨리다, 불안에 떨다, 비감에 젖다, 비명을 지르다, 비탄을 누르다, 샘이 나다, 선망이 어리다, 설움이 북받쳐오

르다, 성이 나다, 수줍음을 타다, 슬픔에 젖다, 신이 나다, 싫증이 나다, 안달이 나다, 외로움을 타다, 욕망에 사로잡히다, 울화가 치밀다, 적의를 품다, 조바심을 내다, 좌절감에 빠지다, 진저리를 치다, 짜증을 내다, 창피를 당하다, 충격을 받다, 탄성을 지르다, 탐을 내다, 투정을 부리다, 한이 맺히다, 호감이 가다, 화가 나다, 환호를 터뜨리다, 회의에 빠지다, 흥미를 끌다, 흥분을 가라앉히다, 희열에 젖다 …

‘결합적 관습성을 띤’, ‘구 전체를 통해서만 감정의 의미가 드러남’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표현들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에 더해, 구가 갖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 해석이 우선적이고 맥락에 의해 감정의 의미가 환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 자체에 감정의 의미가 직접 부호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처럼 의미적 관습성의 정도가 높은 관용구들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1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며 감정의 의미는 부차적으로 맥락에 의해 환기되므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는 제외된다.

(12) 글자 그대로가 의미하는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인 경우: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 제외

가슴속이 메스거리다, 가슴이 뛰다, 가슴이 빠근해지다, 가슴이 아릿하다, 가슴이 저리다, 가슴이 찢끔하다, 걸음걸이가 가볍다, 고개가 수그러들다, 고개를 갸우뚱하다, 고개를 들지 못하다, 고개를 떨어뜨리다, 고개를 뺏뺏이 들다, 콧불이 뜨끔하다, 기운이 빠지다, 낮이 뜨거워지다, 눈길을 떼지 못하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눈물을 글썽이다, 눈물을 훔치다, 눈빛이 차갑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눈썹을 찡그리다,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눈을 내리깔다, 눈을 동그랗게 뜨다, 눈을 부라리다, 눈을 크게 뜨다, 눈을 흘기다, 눈이 휘둥그레지다, 눈초리가 꼬이다, 눈총이 따갑다, 다리에 힘이 빠지다, 뒤통수를 긁적거리다, 맥이 빠지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목소리가 가볍다, 목소리가 높아지다, 목이 메다, 목이 뺏뺏해지다, 몸을 떨다, 몸이 굳다, 몸이 오싹해지다, 미간을 찌푸리다, 미소를 띠다, 발걸음이 가볍다, 밤새 뒤척이다, 사색이 되다, 손이 떨리다, 숨이 막히다, 시선을 끌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아랫도리가

후줄거리다, 악을 쓰다, 안면근육이 떨리다, 안색이 굳다, 어깨가 움츠러들다, 어쩔 줄 모르다, 언성을 높이다, 얼굴에 그늘이 스치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다, 얼굴을 찡그리다, 얼굴이 달아오르다, 얼굴이 뜨거워지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얼굴이 화끈하다, 울상을 짓다, 울음을 터뜨리다, 웃음을 띠다, 이마가 상기되다, 인상을 쓰다, 입술을 비죽거리다, 잠을 설치다, 전율이 일어나다, 정색을 하다, 정신이 산란하다, 침을 꿀꺽 삼키다, 코가 시큰하다, 표정이 굳다, 한숨을 짓다, 힘이 빠지다 ...

한편 ‘감정’은 자극체에 의해 유발되는 비의도적인 반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라면 의미적으로 자극체에 의한 비의도적인 감정 반응을 표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구 표현은 특정 감정이 유발됨으로써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13) 행위주의 의도적인 행동을 표현: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서 제외
 감자를 먹이다, 감정을 다잡다, 감정을 억누르다, 고향을 지르다, 고향을 치다, 눈물을 삼키다, 눈을 부릅뜨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떡살을 잡다, 면박을 주다, 숨을 죽이다, 신경질을 부리다, 심술을 부리다, 악다구니를 지르다, 악다구니를 펴붓다, 야단을 치다, 원새끼를 꼬다, 욕을 펴붓다, 큰소리를 치다, 호통을 치다 ...

지금까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표현은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할 수 있다.

본고의 감정 표현 추출 대상 자료로부터 추출한 감정 표현 중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

가슴 한구석이 움찔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치밀어오르다, 가슴속이 부풀어오르다, 가슴에 멍이 들다, 가슴에서 피가 끓다, 가슴을 뜯다,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다, 가슴을 울리다, 가슴을 조이다, 가슴을 졸이다, 가슴을 쥐어뜯다, 가슴을 찌르다, 가슴을 후벼 파다,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뚫리다, 가슴이 뜨거워지다,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뜨끔하다, 가슴이 떡떡하다, 가슴이 무겁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미어터지다, 가슴이 서늘하다, 가슴이 썰렁하다, 가슴이 쓰라리다, 가슴이 아리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젖다, 가슴이 찢어지다, 가슴이 축축하다, 가슴이 턱 막히다, 가슴이 텅 비다, 가슴이 험하다, 감정에 상처를 입다, 감정을 건드리다, 감정이 격해지다, 감정이 기울다, 감정이 뒤틀리다, 감정이 묘하다, 감정이 무겁다, 감정이 복잡하다, 감정이 상하다, 감정이 흔들리다, 거품을 물다, 골머리가 썩다, 골머리를 썩이다, 골머리를 앓다,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지끈거리다, 골치를 앓다, 구역질이 나다, 구토를 느끼다, 군침을 흘리다, 군침이 고이다, 귀가 번쩍 뜨이다, 귀가 번쩍하다, 기가 꺾이다, 기가 막히다, 기가 질리다, 기가 차다, 기를 펴다, 기분을 망가뜨리다, 기분이 가라앉다, 기분이 괜찮다, 기분이 그렇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너털너털하다, 기분이 더럽다, 기분이 묘하다, 기분이 무겁다, 기분이 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기분이 잡치다, 기세가 등등하다, 기세에 놀리다, 김이 새다, 깨소금 맛, 낮을 붉히다, 낮이 간지럽다, 녀을 놓다, 녀을 잃다, 녀이 나가다, 녀이 빠지다, 눈꼴이 시리다, 눈독을 들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앓다, 눈앞이 아득해지다, 눈앞이 아득하다, 눈앞이 아찔하다, 눈앞이 어둑하다, 눈앞이 어릿어릿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해지다, 눈에 쌍심지를 돋우다, 눈이 뒤집히다, 눈이 빠지다, 느낌이 서늘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다리가 오그라들다, 독이 오르다, 뒤통수가 서늘하다, 뒷골이 서늘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마음 한구석이 차오르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끌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적시다, 마음을 졸이다, 마음이 가라앉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해지다,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멍들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식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약해지다, 마음이 좋아들다, 마음이 텅 비다, 마음이 풀어지다, 마음이 흔들리다, 머리가 서다, 머리가 터지다, 머리끝이 곤두서다,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다, 머리털이 곤두서다, 머릿속이 텅 비다, 면목이 없다, 목에 힘이 들어가다, 몸돌 바를 모르다, 몸서리를 치다, 발을 동동 구르다, 밥맛이 없다, 배가 아프다, 배꼽을 잡다, 뺨이 풀리다, 뺨이 뒤틀리다, 부아가 끓다, 부아가 끓어오르다, 부아가 솟구치다, 부아가 치밀다, 부아가 치밀어오르다, 비위가 상하다, 뿡 가다, 소름을 돋우다, 소름을 치다, 소름이 끼치다, 소름이 돋다, 속에서 천불이 나다, 속을 끓이다, 속을

태우다, 속이 상하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울컥 치밀어오르다, 속이 화끈거리다, 손에 잡히지 않다, 숨도 못 쉬다, 숨통을 조이다, 숨통이 트이다, 식은땀이 흐르다, 신경을 건드리다, 신경을 곤두세우다, 신경을 쓰다, 신경이 곤두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신경이 날카롭다, 신경이 쓰이다, 신경질이 나다, 신물이 나다, 심사가 뒤틀리다, 심사가 산란하다, 심술이 끓다, 심장이 터지다, 쓴물이 올라오다, 악에 받치다, 앓던 이가 빠지다, 애가 달다, 애가 타다, 애간장을 태우다, 애를 먹다, 어안이 병병하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억장이 무너지다, 얼굴을 붉히다, 얼이 빠지다, 열을 내다, 열을 올리다, 오금이 저리다, 이가 갈리다, 이골이 나다, 이력이 나다, 이를 갈다, 입맛이 쓰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입이 벌어지다, 재수가 없다, 정신을 빼앗기다, 정신이 뒤집히다, 정신이 빠지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팔리다, 주눅이 들다, 쥐구멍 속에 들어가 숨고 싶다, 진땀이 흐르다, 촉각을 곤두세우다, 치가 떨리다, 코웃음을 치다, 콧방귀를 끼다, 표정이 어둡다, 풀이 죽다, 피가 끓어오르다, 피를 말리다, 핏대를 올리다, 한숨이 깊다, 한숨이 나다, 한숨이 나오다, 한풀 꺾이다, 할 말을 잃다, 할 말이 없다, 혀를 내두르다, 혀를 차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를 결합적 관습성을 가지면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관용 표현으로서의 전형성과 감정 의미의 전형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구 표현들을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와 비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로 구별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먼저 ‘구’ 단위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감정 표현은 결합적 관습성을 갖는 표현임을 언급하였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의 머릿속 언어 지식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어휘 차원이 아닌 구 차원에서 연구할 만한 대상으로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를 이루는 일부 요소가 감정의 의미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구 전체를 통해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이면서, 관습적으로 부호화된

의미로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할 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의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자는 결합적 관습성에 더해 의미적 관습성까지 가질 때 더 전형적인 관용 표현이라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특정 감정의 의미가 부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의미적 관습성을 더 높은 정도로 갖는 더 전형적인 관용 표현이라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 의미의 전형성을 고려하여, 자극체에 의해 유발되는 비의도적인 감정을 의미할 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에 포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감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일 때 전형적인 감정 표현 관용구로 포함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남은 문제 중 하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들을 감정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다. 홍종선·정연주(2009)에서는 ‘표현구조 검증법’을 통해 감정동사들을 감정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15)와 같은 표현구조들을 마련한 후 각각의 표현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낸 것이다.

(15) [‘감동’의 표현구조]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어서}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ㄱ. 나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스러워서}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 자연스럽게 어울림)

ㄴ. #나는 그 영화를 보고 {감격스러워서}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음. 아래에 제시한 ‘기쁨’의 표현구조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림.)

[‘기쁨’의 표현구조]

“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었다}.”

ㄱ. 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다}.
(→ 자연스럽게 어울림)

ㄴ. 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 자연스럽게 어울림)

(홍종선·정연주 2009)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감동의 감정을 느꼈을 때 행동의 변화를 다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특정 감정과 특정 상황이 관련될 때, 그 둘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표현한 것이 표현구조이다. 그리고 각 감정을 대표하는 표현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라면, 그 표현은 해당 표현구조로 대표된 감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감정 표현 관용구도 표현구조 검증법에 따라 의미적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놀람’의 표현구조]⁴⁾

“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눈앞에서 맞닥뜨린 사건 때문에 {~었다}.”
/ “아무런 예고 없이 눈앞에서 맞닥뜨린 사건이 나를 {~었다}.”
→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턱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질리다, 뉘을 놓다, 뉘을 잃다, 뉘이 나가다, 뉘이 빠지다, 눈앞이 아찔하다, 머리끝이 곤두서다, 머리털이 곤두서다, 몸서리를 치다, 소름이 끼치다, 소름이 돋다, 심장이 터지다, 어안이 병병하다, 열이 빠지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입이 벌어지다, 할 말을 잃다, 혀를 내두르다

[‘슬픔’의 표현구조]

“나는 사랑하는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었다}.” / “사랑하는 친구와의 작별은 나를 {~었다}.”
→ 가슴에 멍이 들다, 가슴을 뜯다,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다, 가슴을 쥐어뜯다, 가슴을 찌르다, 가슴을 후벼 파다, 가슴이 멍멍하다, 가슴이 미어지다, 가슴이 미어터지다, 가슴이 쓰라리다, 가슴이 아리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젖다, 가슴이 찢어지다, 가슴이 축축하다, 감정 에 상처를 입다, 감정이 격해지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 마음을 적시다, 마음이 멍들다, 마음이 아프다, 역장이 무너지다

이처럼 표현구조 검증법을 통해 각 부류의 하위에 속한 감정 표현들이 유사한 감정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다. 그렇지만

4) 경험주·외부 대상 중심 감정 표현 관용구에 더해 자극체 중심 감정 표현 관용구까지 포괄하기 위해 두 종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의미에 따른 감정 표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인 ‘임의적인 분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감정 표현 관용구, 관용 표현, 관습성, 전형성, 범주화, 목록

<참고문헌>

- 강위규(1990).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 209, 한글학회, 141쪽~162쪽.
- 고광주(2000). 관용어의 논항구조와 형성제약. 『어문논집』, 42, 민족어문학회, 261쪽~283쪽.
- 권경일(2009).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119쪽~140쪽.
- 김은영(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은영(2005). 현대국어 감정동사의 범위와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16, 한국어 의미학회, 99쪽~124쪽.
- 김진우(2004). 『언어: 그 이론과 응용』(개정판; 초판 1985). 서울: 탐출판사.
-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향숙(2005). 감정 표현으로서의 감각어.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163쪽~195쪽.
- 박동근(1995).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론적 특성 연구: 사·피동법 제약을 중심으로. 『건국어문학』, 19,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657쪽~682쪽.
-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국어학회, 307쪽~359쪽.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361쪽~384쪽.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11쪽~444쪽.
- 임지룡(2003). 감정 표현의 관용성과 그 생리적 반응의 상관성 연구. 『기호학연구』, 14, 한국기호학회, 53쪽~94쪽.
- 장세경, 장경희(1994).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95쪽~318쪽.

- 정성미(2008). 신체어 감정 관용 표현의 서술어 의미 연구: 긴장과 분노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 의미학회, 243쪽~265쪽.
- 주경미(2006). 신소설에 나타난 신체어 관련 관용 표현 연구.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25쪽~51쪽.
- 최경봉(1992). 국어 관용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홍종선, 정연주(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387쪽~420쪽.
- Lyons, W.(1980). *Emo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racher, H.(1976). *Einführung in die psychologie*. München, Berlin, Wien: Urban und Schwarzenberg. (윤홍섭 역(1990). 『심리학개론』. 서울: 성원사.)

[Abstract]

Establishing the category of conventional expressions denoting emotional meanings

Jeong, Yeon-ju · Choi, Suk-jae · Jung, Kyeong-mi · Hong, Jong-seon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category of conventional expressions which denote emotional meanings definitely by considering the expressions' typicality as a conventional expression and the typicality of meanings of 'emotion', and to present the list of the phrases qualified to be in that category. First, an emotion expression having combinational conventionality can be considered as a sort of a meaningful phrase unit. When a phrasal expression satisfying this condition expresses an 'emotional' meaning, it is probably a conventional emotion expression. Next, those expressions are divided into 2 kinds by semantic features: the typical conventional emotion expressions and the non-typical conventional emotion expressions. A typical conventional emotion expression could express its emotional meaning only as a whole phrase; Furthermore, the phrase itself includes a emotional meaning as a conventionally coded meaning; and, the phrase expresses non-intentional emotion caused by stimuli.

【Key words】 : conventional emotion expressions, conventional expressions, conventionality, typicality, categorization, list

정연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8-745)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삼환아파트 10동 904호

전자우편: jyj01@chol.com

최석재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lingua@hanmail.net

정경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55) 서울시 성북구 돈암1동 삼성아파트 103동 2303호

전자우편: ckm74@hanmail.net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ongjs@korea.ac.kr

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5월 21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